

메시·모드리치 '라스트 댄스'... 한 명은 운다



루카 모드리치



리오넬 메시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35·아르헨티나·파리 생제르맹)와 ‘최고의 미드필더’ 루카 모드리치(37·크로아티아·레알 마드리드)가 생애 마지막 꿈인 ‘월드컵 우승’으로 향하는 길목에서 운명의 맞대결을 펼친다.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는 한국시간으로 14일 오전 4시 카타르 루사일 스타디움에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 준결승전을 치른다. 두 팀은 메시와 모드리치라는 걸출한 베테랑이 중심축 역할을 하는 공통점이 있다. 축구 선수로서 환갑인 30대 중반인 이들에게 이번 대회가 사실상 마지막 월드컵이라는 점도 같다.

더불어 나란히 월드컵 무대에서 ‘준우승·골든볼’의 경력을 가진 것도 똑같다.

역대 최고의 골잡이로 손꼽히는 메시는 19세이던 2006년 독일 월드컵부터 이번까지 5번의 월드컵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출전했다. 그러나 우승은

아르헨·크로아티아 내일 새벽 ‘월드컵 우승’ 길목 운명의 맞대결
축구의 신-최고의 미드필더 ‘준우승·골든볼’ 수상 경력도 똑같아

못 했다.

2014년 브라질 대회에서 준우승에 그친 게 메시가 있는 동안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거둔 최고 성적이다.

메시는 2014년 브라질 대회 때 4골 1도움의 활약을 펼쳐 대회 최우수선수상인 골든볼을 수상했다.

2018년 러시아 대회에서는 16강전에서 프랑스에 3-4로 져 탈락했다.

아르헨티나가 월드컵에서 마지막으로 우승한 것은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다. 당시 ‘원조 축구의 신’ 디에고 마라도나가 우승에 앞장섰다.

2021 코파 아메리카 우승을 일궈 ‘메이저 대회 무관’ 징크스를 끝낸 메시가 월드컵 우승까지 이뤄

러시아 대회 때 모드리치는 33세였다. 당시 러시아 대회가 모드리치의 마지막 월드컵이 되리라고 전망하는 사람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대회에서 모드리치는 4년 전에 버금가는 활약을 펼치며 우승을 향해 전진하고 있다.

메시와 모드리치는 프로 공식전과 A매치에서 총 25차례 맞붙었다. 모드리치가 몸담은 팀이 11승 5무 9패로 상대 전적에서 앞선다.

A매치에서는 러시아 월드컵 조별리그에서 딱 한 번 맞대결을 펼쳤는데, 크로아티아가 3-0 완승을 했다. 모드리치가 2-0을 만드는 추가골을 넣으며 메시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이 경기를 포함해 아르헨티나와 크로아티아는 통산 상대 전적에서 2승 1무 2패로 팽팽하다. 월드컵 맞대결에서도 1승 1패를 나눠 가졌다.

/연합뉴스



“월드컵 우승 꿈이 끝났다”

호날두, SNS에 아쉬움 토로
“내 헌신은 한 번도 변질 안 해”

‘슈퍼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무적)가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우승 꿈을 이루지 못한 아쉬움을 SNS를 통해 절절하게 쏟아냈다.

호날두는 12일(한국시간) 인스타그램에 장문의 글을 올렸다. 월드컵 8강에서 포르투갈이 모로코에 0-1로 충격패한 뒤 하루만이다.

호날두는 “포르투갈을 위해 월드컵 우승 트로피를 들어 올리는 것은 나에게 가장 큰 야망이자 꿈이었다”면서 “꿈을 위해 싸우고 또 싸웠다. 16년 동안 월드컵에 5차례 출전해 꿈을 넣었다. 난 단 한 번도 싸움을 외면하지 않았다.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적었다.

이어 “어제 그 꿈이 끝났다. 온갖 말과 추측이 나왔으나, 포르투갈을 향한 나의 헌신은 단 한 번도 변질한 적이 없다”면서 “내 동료, 내 조국에 등 돌린 적이 없으며, 언제나 목표를 위해 싸워왔다”고 썼다.

지난 10여 년 동안 호날두는 프로 무대에서 수많은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대표팀에서도 2016년 유럽축구선수권대회(유로 2016)에서 우승했다.

호날두가 딱 하나 이루지 못한 것은 월드컵 우승 뿐이었다.

이번 대회 조별리그 1차전에서 페널티킥 골을 넣어 유일하게 월드컵 5개 대회에서 득점에 성공한 선수가 되는 등 새로운 기록을 써 내려갔으나 우승은 이루지 못했다.

호날두는 올해 37세여서 4년 뒤 북미 월드컵 출전은 사실상 어려워 보인다. 본인도, 팬들도 이번 카타르 대회를 호날두의 마지막 월드컵으로 규정했다.

호날두는 16강전과 8강전 선발 명단에서 제외돼 교체로 뛰었다.

호날두는 “포르투갈에, 카타르에 고맙다. 꿈이 이어지는 동안 행복했다”고 썼다.

많은 스포츠 스타들이 댓글로 응원의 메시지를 남겼다.

투병 중인 브라질의 축구 황제 펠레는 “우리를 웃게 해줘서 고맙네 친구”라고 다독였고, 칼리양 음바페(프랑스·파리 생제르맹)는 염소 이모티콘을 올렸다. 염소(goat)는 ‘역대 최고(Greatest of all time)’의 약자로도 쓰인다.

/연합뉴스

월드컵 남은 4경기에 황금색 ‘알 힐름’ 사용

국제축구연맹(FIFA) 2022 카타르 월드컵 4강전부터 사용될 공인구 ‘알 힐름’이 공개됐다.

FIFA는 11일 아랍어로 ‘꿈’으로 번역되는 알 힐름이 기존 공인구 알 릴라를 대신해 이번 대회 4강전부터 사용된다고 밝혔다.

이 공은 알 릴라와 마찬가지로 반자동 오픈사이드 기술을 위한 전자장치를 내장했다.

알 릴라와는 소재, 디자인에서 차별화된다.

흰색 위주인 알 릴라와 달리 월드컵 트로피와 같은 금색 바탕에 카타르 국기에서 영감을 받은 삼각형 패턴이 특징이라고 FIFA는 설명했다.

아울러 환경에 미치는 여파를 고려해 이 공이 모두 수성 잉크·접착제로만 제작됐다고 덧붙였다.

제조사 아디다스의 닉 크레이그스 총괄 담당(General Manager)은 “알 힐름은 세계를 하나로 모으는 축구와 스포츠의 힘을 보여주는 불빛이 될 것”이라며 “축구는 종목을 제공하는 가장 큰 무대(월드컵)의 마지막 단계에 참여하는 팀들에게 행운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적이 된 친구들 음바페·하키미 “월드컵은 양보 못해”

프랑스-모로코 4강전
PSG서 한술밥 먹는 동갑내기
‘친구야 곧 보자’ 서로 격려



프랑스 리그1 PSG의 동갑내기 절친인 프랑스의 음바페(왼쪽)과 모로코 하키미.

2022 카타르 월드컵 준결승전에서 ‘아프리카 이민 2세대’ 선수들의 ‘전진 대결’이 펼쳐진다.

세계 최고의 골잡이로 떠오르고 있는 칼리양 음바페(프랑스)와 모로코의 4강 신화를 든든하게 뒷받침한 아시라프 하키미(이상 파리 생제르맹·PSG)가 카타르 월드컵 준결승에서 맞대결을 펼친다.

2021년부터 PSG에서 한술밥을 먹는 음바페와 하키미의 우정은 이미 유명하다.

동갑내기인 둘은 음바페가 골을 넣을 때나 팀이 승리했을 때 미리 맞춰놓은 세리머니를 펼쳐 팬들을 흐뭇하게 했다.

훈련장에서든 스스럼없이 서로에게 장난치는 모습이 여러 차례 카메라에 잡힌 바 있다.

둘은 경기장이나 훈련장 밖에서도 함께하는 시간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의 최고 단짝이 손흥민과 해리 케인(이상 토트넘)이라면, 프랑스

리그를 대표하는 단짝은 음바페와 하키미라 할 만하다.

둘은 다문화 배경을 공유하고 있어 더 친해진 것으로 보인다.

음바페는 카메룬 출신 축구 지도자인 아버지와

알제리 출신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프랑스 파리에서 나고 자랐다.

하키미는 스페인 마드리드 태생이지만 모로코인 부모를 뒀다. 프랑스 대표팀을 선택한 음바페와 달리, 하키미는 ‘핏줄의 고향’인 모로코 대표팀

을 선택했다.

지난여름에는 하키미가 음바페를 데리고 모로코 휴가를 다녀오기도 했다.

중앙과 좌우를 가리지 않고 전방이라면 어느 포지션이든 소화할 수 있는 음바페는 프랑스 대표팀에서 원조 공격수로 나서고 있다.

하키미는 소속팀에서처럼 대표팀에서도 오른쪽 풀백으로 나서고 있다.

주축 선수인 둘은 준결승전 선발 출격이 유력해 ‘정면충돌’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지난 7일 모로코가 16강전에서 스페인을 승부차기로 누르고 8강에 진출하자 음바페는 트위터를 통해 친구에게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음바페는 하키미와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모로코 국기, 왕관, 손가락 하트 이모티콘을 트윗했다.

하키미는 하트, 악수 이모티콘과 함께 ‘친구야 곧 보자’라고 답했는데, 이게 실제로 이뤄졌다.

11일 모로코는 포르투갈을 꺾고 아프리카 팀으로는 최초로 월드컵 4강에 오르는 신화를 작성했다.

이어진 8강 경기에서 프랑스가 잉글랜드를 2-1로 제압해 모로코-프랑스 대진이 만들어졌다.

모로코와 프랑스의 준결승전은 15일 오전 4시(한국시간) 킴프르다.

/연합뉴스

월드컵 4강전

14(월)수 ※한국시간 기준

아르헨티나 vs 크로아티아 04:00

자료: FIFA